

하나됨과 나눔

“ 광야로 나아가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자. ”  
< 갈라디아서 1장 17절 >

- 매일 카톡으로 전달하는 성서일기 요약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장지영 권사 부친 장례식이 어제(9일) 있었습니다.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 온라인 현금 계좌 안내입니다. 농협 351-0386-3884-63 이윤희
- 한국기독교대안학교연맹 교장단 연수가 12일(화) 10:00-16:00 줌으로 모입니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강단을 꽃으로 :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구 앞

##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 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기 관 : 공동체교회 · 공동체학교 · 생활공동체 · 부속기관  
선교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38 - 2호  
2020년 1월 10일

#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 새해 첫 달에서

신축년입니다. 하얀 소의 해라고 해서 소가 그려진 메시지들을 받은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어느덧 송구영신예배를 드리며 새해를 맞이한지도 벌써 열흘이나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나이를 셀 때 한 살씩 더해서 계산하는 것이 아직은 어색하기만 합니다. 그래도 가만히 보낼 수만은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 새로운 출발을 위해 새해 계획을 세워보았습니다. 작년부터 생각해왔던 것들을 보강하거나 변경하기도 하고, 비록 10일 정도지만 그 계획을 얼마나 지켰는지도 돌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득, 하나님이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서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지에 대해서도 생각이 미치게 되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역법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지정되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 바로와 대립하며,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를 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모든 만이가 죽는 마지막 재앙을 남겨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앞에서 전하고 나온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이 달을 한 해의 첫째 달로 삼아서, 한 해를 시작하는 달로 하여라.(출 12:2)”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양을 잡아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음식을 함께 모여서 먹는 유월절과 무교절 규례를 처음으로 말씀하시며, 이 절기를 대대로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첫 달과 그에 따른 절기가 만들어졌습니다. 또 모세는, 이 의식의 의미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임을 후세에게 가르쳐주라고 전달하였습니다(12:27).

유월절의 가장 큰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과 섞여 살던 히브리 민족이 분명하게 분리되었고, 그 압제에서 벗어나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길의 여정에 올랐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내려주실 때에, 스스로를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 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20:2)”라고 칭하면서 관계를 정리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은 새해 첫 달에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며, 그 당시

를 회상하는 삶을 이어오게 되었습니다. 유월절 참여 조건은 엄격합니다. 이방인은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외국인 손님이나 일꾼 또한 마찬가지로였습니다. 다만 돈으로 사들인 종이나 몸붙여 사는 사람이라면, 할례를 받고 나서야 비로소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라 할지라도 할례를 받지 않는다면 음식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할례가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온 언약이자, 하나님의 백성에 속해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표였기 때문입니다. 할례받지 않은 사람은 같은 민족으로 취급받지 않았습니다. 할례의 여부는 이스라엘 민족과 타국인들이 구별되는 가장 확실한 증표였습니다.

한 해의 시작이 주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를 통해 지정되었다는 사실은 사뭇 의미심장합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지키기 위해 유월절이란 절기를 내려주셨습니다. 이 날은 유대인의 명절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날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월절 식사를 최후의 만찬으로 보내시며, 새로운 의미를 더하셨습니다. 빵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누어주시면서 자신의 살과 피라고 하시며, 이것을 먹고 자신을 기억하라고 당부하신 것입니다. 일찍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부른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피로 구함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현 개신교에서는 유월절 음식을 먹으며 날짜를 지키거나, 할례를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모두가 함께 음식을 나누어먹으면서 예수님을 기념하는 성찬식을 드립니다. 온 인류를 위하여 세상에 오시고 죽으셨던 그 분의 희생과 사랑을 떠올리면서 말입니다. 이번 송구영신예배에서도 각자가 떨어져서나마 성찬식을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모두가 같은 빵의 조각과, 같은 포도주의 일부를 마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한 분의 은혜를 함께 입은 사람들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롭게 주어진 시간들을 마음속에서 그려보기에 앞서, 예전에 주어졌던 은혜들을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우리 사랑방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빛과 소금의 삶을 더 잘 감당하기를 가슴 깊이 소망합니다.

디아코니아사랑방 이어진 전도사

한주간의 말씀

“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  
 < 시편 1편 1-2절 말씀 >

<수요기도회>

성경 : 시편 6편  
 제목 : 솔직한 기도  
 인도 : 권재만 목사  
 찬송 : 212 293 300 366 364

- 1-4 고통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맙시다.  
 관찰 : 시인은 고난 중에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해석 : 인간의 한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적용 :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 5-7 하나님께 솔직하게 나의 감정과 생각을 고백합니다.  
 관찰 : 감정적으로는 과장된 감정상태를, 이성적으로는 죽은자의 한계를 말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해석 : 시인은 하나님께 감정적으로나 이성적으로나 솔직하게 간구합니다.  
 적용 : 솔직하게 우리의 감정을 고백합니다.
- 8-10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영광 받으십니다.  
 관찰 : 기도들이 이루어졌고 원수가 도망갔습니다.  
 해석 : 고난이나 병은 누구의 죄 때문에 아닌 하나님의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적용 : 우리의 고통, 연약함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가져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영광받으실 것입니다.

회장	조인서 임시대회장			서기(부서기)	김병우 이충환
				회계(부회계)	최창수 이윤희
위원회	위원장	서기	회계	부서	부원
사랑방 성서모임 위원회	박태규	이승호	채영학	연령별 사랑방	채영학 정재훈 장영미 정다운 최기찬 차태욱
				지역별 사랑방	이승호 이어직
친교 위원회	채영대	임은숙	임은숙	친교부	최연우 공재규 권수현 이어람 정미란 김지현
				경조부	임명숙 진정행 신기성 김영동 전경희
				새가족부	임은숙 이재신 채복희 전선희 윤경옥
예배 위원회	김중필	우창숙	우창숙	예배부	장미숙 진용용 우창숙 김미섭 이창운
				음악부	김영희(p) 이근자 박산하 김성기 박민정 엄원식 옥대철
교육 위원회	서병욱	정혜정	임진숙	교육행사부	정혜정 구경본 신수호 권혁수 한대훈 노미현 권재만
				종합교육부	임진숙 한혜정 김일구 이어진
봉사 위원회	강춘자	윤호중	윤호중	봉사부	윤호중 장지영 박동인 김재욱 정성미 정혜욱 최신혜 한미선 김혜경 장미라
				미화부	김영화 김종훈 백성복 이윤순
				차량부	석용범 최상득
선교 위원회	하경임	전향옥	전향옥	국제선교부	박영선 류기석 해은 조소연
				국내선교부	전향옥 정영옥 김기환 차현주
				지역사회부	오영옥 이종옥 이명호 정승희
행정 위원회	조장희	최창수	최창수	서무부	박경희 김순정 이현숙
				재정부	임상희 최창수 이윤희
				관리부	나송주 배덕호 양기모 한태수

##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인도자 : 권재만목사  
설교자 : 정태일목사

###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초청의 말씀  
\* 예배의 찬송  
\* 기원의 기도  
\* 기원찬송

마태복음 7 : 24-25 인도자  
1 다함께  
영광 영광 인도자  
다함께

### 죄의 고백과 용서

\* 참회의 기도  
\* 용서의 말씀  
\* 신앙고백  
고백의 찬송  
공동기도  
목회기도

히브리서 4 : 12 인도자  
88 다함께  
다함께  
인도자

###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성경낭독  
성가대 찬양  
설 교

시편 1 : 1-6 설교자  
202 사랑방  
“ 복되어라, 365일 ” 정태일목사

### 의탁과 섬김의 삶

의탁의 기도  
응답의 찬송  
\* 봉헌기도  
\* 영광찬송  
\* 위탁의 말씀  
\* 강복기도

200 설교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설교자  
설교자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돕는 이들 안내 : 김중필, 이현숙 / 봉헌위원 : 김중필 / 꽃꽂이 : 김영화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박민정, 임은숙, 안지운  
서진솔, 석지인, 옥대철

예 배

## 공동기도문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세상의 문자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일 수 없는 어려운 시기에, 성경 말씀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도록 도와주소시오. 아멘.

### 복되어라, 365일

복 있는 사람. 금년 생활표어는 ‘광야로 나아가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자.’로 지금의 시기를 개인의 신앙을 내면화하는 기회로 삼자는 뜻입니다. 오늘은 성경을 가까이하는 생활입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 <1-2>과 복 있는 사람의 결과, <3-4> 그리고 두 사람의 길 <5-6>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주제 절은 1절로 “복 있는 사람은 ...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입니다.

복 있는 사람. 금년 생활표어는 ‘광야로 나아가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자.’로 지금의 시기를 개인의 신앙을 내면화하는 기회로 삼자는 뜻입니다. 오늘은 성경을 가까이하는 생활입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 <1-2>과 복 있는 사람의 결과, <3-4> 그리고 두 사람의 길 <5-6>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주제 절은 1절로 “복 있는 사람은 ...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믿음의 내면화를 위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십시오. 먼저 성서일기를 쓰십시오. 공동체성서연구는 성경을 매일 직접 읽고, 말씀을 객관적으로 해석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들은 대로 삶에 실천하도록 준비된 방법입니다. 모이지는 못해도 각자 성서일기는 쓰도록 합니다. 그리고 성서일기를 쓸 수 없으면 성경을 읽고 마음에 닿는 부분에 표시를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성경의 귀한 말씀들을 암송하십시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권재만 목사 / 기도 : 박태규 집사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어린이이학교 >

### 모든 것이 주의 은혜

벌써 6년의 시간이 훌쩍 흐르고 새해에는 멋쟁이에 진학하는 딸이 있습니다. 어린이학교 입학식 때, 장기자랑에 겁먹어 울어버린 수아는 이제 중학생이 되었고, 수줍음 많고 순하기만 했던 수아는 자기생각을 차분하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생각도 깊어졌습니다.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면 나도 엄마로써 배우며 엄마로써 철들어가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수아 6살 때 다녔던 미술학원에서 동네 엄마들이 모여 “아이들이 점심시간에 코렐 밥그릇에 밥을 먹는데...” 귀동냥으로 들은 엄마들의 말의 시작으로 학교와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 후 꾸러기부터 다니고 싶었지만 차량이 해결되지 않았고 잇고 지내다가 어린이학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입학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학년 입학식, 첫 번째 여행, 고사리 손으로 처음 바느질해온 열쇠고리, 어린이학교는 저와 수아에게 온통 처음, 처음, 모든 게 처음 겪어보는 연속의 날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처음이 되어준 이곳이 사랑방공동체 교회의 학교임이 문득 감사함으로 다가옵니다. 수아아빠의 사업이 고전을 면치 못할 때, 몇 번을 내가 수아 앞에서 웃었을까.. 생각할 만큼 어둠의 긴 터널이 우리 가정에 있었습니다. 아이에게 표시내지 않고 지내고 싶었지만 크고 잦은 수아아빠의 분노는 고스란히 가정 속에 말없이 스며들었고, 나의 긴장되고 서글픈 감정에 아이는 점점 말수가 없어져 보이고 슬퍼 보이기만 했고 그 모든 것이 그저 내 탓만 같아 이중삼중으로 힘든 날들이었습니다. 그때 학교는 아이의 숨구멍이 되어 주었던 것 같습니다. 위로가 되어주는 학교라고 표현했던 수아였기 때문입니다. 1학년 부모참여 예배 때 정태일 목사님의 고백은 지금 생각해도 늘 가슴에 바람을 일으킵니다. 그 이후에는 들은 기억은 없습니다. 담담하게 아드님 얘기를 하시는데 남의 얘기하듯 그저 차분하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이후 저는 좀 더 제 삶을 얘기해야 할 때 포장하지 않으려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게 다 자유하진 않습니다. 내안의 나를 바꾸는데는 시간이 필요하고 아직 주님의 터치는 계속 되고 있습니다. 유난히 그 말씀이 오랜 여유를 남기고 어떤 변화의 포인트가 된 것은 수아가 제게 주는 존재감의 무게에 있기 때문입니다.

배움과 가르침

돌이켜보니 그저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루하루의 어린이학교는 수아와 제게 때로는 칼바람이었고 떠나고 싶었고 서글펐던 곳이었으며, 하루하루의 어린이학교는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고, 행복했고, 감사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설거지 당번이었을 때 고된 노동에 불평했고, 어느덧 익숙해져서 사랑바람에 킁피한잔이 고마웠고, 학교 앞마당의 푸른 하늘에 눈물이 났으며, 지친 내 마음을 수아의 웃음소리에 힘을 내곤 했던 곳이었습니다. 스쳐지나가듯 무심히 해주시던 수아의 칭찬에 남몰래 고마웠고,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 선생님께 한없이 무너져 내린 고마운 곳이었습니다. 학교까지의 등학교는 치열했지만 지나고 보니 딸아이와의 소중한 추억이 되었고, 주님의 사랑도, 섭리도, 은혜도, 선생님들의 지도와 사랑도, 공동체의 희생과 사랑도,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시간과 통로였습니다.

우리가정도 긴 터널을 지나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수아는 사랑방공동체의 사랑의 밑거름으로 자랐습니다. 학교의 사랑이 없었다면 저 아이의 웃음이 찢이 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학교 모래밭이, 학교 운동장이, 학교 밥이, 학교의 나무가, 학교의 하늘이 그리고 학교의 십자가, 학교의 모든 분들의 보살핌이 아이를 성장시켰습니다.

“엄마, 나는 학교가 좋아”

수아의 고백은 이제 저의 감사함으로 이어집니다. 사실 저는 오랫동안 수아의 진학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학교로의 진학도 염두에 두고 기도 중에 있었고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정태일 목사님의 훌륭하심과 사랑방공동체의 사랑의 고마움, 사람들의 선함과 진실함 등 주관적이긴 하지만 많은 부분을 새롭게 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알게 해준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수아의 어린이학교 6년의 시간동안 많은 관계 속에서 나를 돌아보고 나를 알아가게 되었고, 수아가 성장하듯 나도 들여다보는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수아는 멋쟁이에 진학하게 됩니다. 내 생각과 다른 주님의 섭리에 감사하며 미처 알지 못한 세세한 부분을 진학 과정에서 알게 해주시고 수아에게 가장 좋은 학교로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수아의 새로운 도약을 응원하며, 수아를 위해 사랑으로 지도해주시고 보살펴주신 어린이학교 교장선생님과 모든 선생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어린이학교 학부모 최수아 어린이 엄마 남영조

## “함께”라는 이야기

코로나 시국에 위험하게 여겨지는 단어들이 있다. ‘함께, 여행, 밀접함...’ 같은 것들이 그렇다. 우리가 참 소중하게 생각했던 단어들인데 어느새 경계해야 되는 의미를 담은 단어들이 되었다.

이 지면의 이름이 ‘함께 사는 이야기’이지만 근 1년 넘게 기본 가족을 넘어서서 함께 뭔가를 하는 데에는 많은 유의사항이 필요했다. 마스크는 기본이고 우선 방역과 체온 재기를 해야 하고 그 다음에는 거리 유지, 또는 칸막이 사용을 했다. 그래서 함께 방역한 이야기, 줄 세워서 체온을 재고 기록하는 이야기, 붙어서 팔짱 끼거나 어깨동무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어, 거리 유지해야지~!”라고 조심시키는 이야기, 칸막이를 소독하고 바로 세우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은 밥 먹은 이야기, 매일 밤 수면을 취하는 이야기만큼 흔하고 일상적인 이야기였다. 그나마도 작년 연말부터 사적인 이유로 5인 이상 집합을 금지해서 방역 외에는 할 이야기가 없어졌지만.

그래도 우리는 다양한 시도로 ‘함께’를 도모하고 있다. 모두가 알다시피 소규모로, 또는 비대면으로.

소규모로 함께 산책을 나시고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식탁 앞에서 함께 교제를 나누기도 하면서, 또 비대면으로는 zoom으로 모임하고 유튜브로 공유하고 카톡으로 대화하고... 그래서 이 ‘함께’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즐겁고 유익하게 지내려고 한다.

최근에 보고도 믿기 어려운 사건을 뉴스로 보았다. ‘정인이 사건’.

sns에서 누군가 ‘정인아, 미안해’라고 썼길래 사적인 사과를 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곳에 썼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양부모가 독실한(?) 기독교인이라는 점도 충격적이었다.

‘한 아이를 키우는 데 한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한 아이를 학대하는 데에도 한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글을 읽었다. 좋은 일로든 나쁜 일로든 집단의 힘은 크다는 것을 새삼 느끼며 좋은 마을과 선한 연대를 이루기 위해 ‘함께’를 잃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여럿보다 혼자가 편한 절대 내향형인 나도 내게 맞는 ‘함께’의 불씨 돌보기 방법을 잊지 않고 또 발전시켜야겠다.

그루터기사랑방 전선희 집사

## <수요 정오기도회>

말씀 : 시편 131편

인도 : 이어진 전도사

기도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한 기도 <올바른 민주주의를 위해>

1월 6일 미국에서 일부 시위자들이 국회의사당에 난입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수백명 이상이 몰려들면서 충돌이 일어났고, 5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미국의 민주주의가 조롱받으면서 입지가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올바른 절차와 행동으로 평화에 기여하도록 기도해주시십시오.

2. 교회갱신과 공동체를 위한 기도 <헤세드 공동체>

- 1) 이 마지막 시대에 다시 오실 구주 예수님을 맞을 준비로 세속의 흐름에 거룩하게 저항하는 자발적인 소외의 삶을 선택하며,
- 2)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이웃들의 짐을 함께 지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여 구원을 이루게 하시고,
- 3) 위급한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응급실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기도합니다.

3. 지역사회와 공동체를 위한 기도 <좋은 출발을 위해서>

- 1) 사랑방공동체 지체들이 서로 격려하며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가기를
- 2) 교회의 모든 일들이 잘 정리되어서 좋은 출발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 <생활공동체 소식>

지난 주간에 올 겨울 들어서 가장 추운 한파가 들이닥쳤습니다. 눈이 온 후에 영하 20도의 추위가 덮쳐서 주변이 온통 하얗게 얼어붙었습니다. 작년과 다르게 올 겨울은 추위가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날마다 코로나 확진자수를 확인하면서, 모두들 조용하게 연초를 지내고 있습니다. 여전히 3차 유행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 5인 이상 모임이 제한된 상황에서 가정별로 개인별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조용한 가운데 이 모든 어려움이 지나가기를 마음모아 기도할 뿐입니다. 특별히 추운 날씨에 사랑방 식구들과 동네 분들 모두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정재훈 전도사>